

『枕草子』의 복식자료 연구

동의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문 광 회

目 次

- I. 머릿말
- II. 『枕草子』의 복식자료와 현실성 반영
- III. 『枕草子』 편찬기까지의 일본복식의 배경
 - 1. 繩文-彌生-古墳시대
 - 2. 飛鳥-奈良시대
 - 3. 平安시대-『枕草子』 편찬기까지
- IV.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의 분석
 - 1. 의복과 장신구
 - 2. 색 채
 - 3. 직물과 문양
- V.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I. 머릿말

『枕草子(마쿠라노 소오시)』는 서기 1000년 경에 清少納言(세이쇼오나곤)이 一條天皇의 皇后(中宮)인 定子 媛에서 宮廷 女官으로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수필의 형태로 쓴 것으로서, 당시의 궁중생활의 모습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기 1000년 경은 일본의 平安시대(794~1192)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시대의 복식사적 특징은 이전의 繩文, 彌生, 古墳, 飛鳥, 奈良시대를 거치면서 풍부해진 의생활의 문화가 自國의(일본적) 의식의 발로와 함께 화려하게 꽃 피워졌던 시대이다. 특히 고대의 일본문화가 北方 胡族의 衣

袴·衣裳 양식에서 출발되었고, 이후 변화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는 한반도 문화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왔음은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미 여러 측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枕草子』의 저작시기인 1000년 경을 전후해서는 우리나라는 服飾 史料가 매우 부족한 탓으로, 이 시기의 服飾史가 만족할 만큼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간의 연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동양복식권의 흐름 속에서 周邊國에 산재되어 있는 諸作品을 통한 복식자료들을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의 많은 문제가 명료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를 통하여 10세기 말의 일본복식의 상황을 면밀히 고찰해 보고, 그것을 한국복식의 연구에 도움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枕草子』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 문학·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¹⁾ 복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한국에서 『枕草子』를 복식연구의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책은 萩谷 朴이 校注한 1994년 新潮社版 『枕草子 上·下』와 今泉忠義와 鈴木一雄 감수한 1983년 旺文社の 『枕草子』 두 종류이다.

日本 古語로 되어 있는 자료의 해독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註解되어 있는 현대문과 추가로 설명되어 있는 註釋에 많이 의존하였으며, 平安시대가 400년간으로 워낙 길고 그 기간 내에서도 복식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는데 비하여, 『枕草子』에 나타난 자료들은 量이 방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할 수 없었던 점이 본 논문의 한계선이었다. 연구의 미흡함에서 오는 오류는 차기 논문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II. 『枕草子』의 복식자료와 현실성 반영

「벼개 머리에 두고 쓴 작은 책자」라는 뜻을 가진 이 책의 내용은 약 300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체의 특징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작가가 마음 내키는 대로 쓴 非體系的, 非形式的 수필이므로 오히려 여성인 작가의 눈에 비친 당시 궁중의 화

려한 모습은 순수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여성 특유의 복장예의 동경과 관심, 그리고 관찰의 치밀함으로 복장에 관한 것이 비교적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수록되어 있다.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들은 의복과 장신구 44종, 색채 30종, 직물, 문양, 염색법이 합쳐서 11종 등 모두 85종으로 발췌되었으며, 의복과 장신구는 연구의 편의상 外衣, 內衣, 頭衣, 足衣, 裝身具 등으로 세분화 시켜 분석하였다(표 1 참조). 이들 중 의복과 장신구는 『枕草子』 편찬시기를 전후한 延喜式에서의 복장양식²⁾(표 2-1)과 東帶·袿양식에서의 복장제도³⁾(표 2-2)와 비교해 볼 때, 내용상 많은 것이 공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색채에 있어서도 平安시대에 이르러서는 袿를 겹쳐입는 것이 일반화 되어 배색에 대한 美的 흥미가 매우 유행하였으므로, 以前에 5~6枚 겹쳐 입던 것을 18~20枚 가까이 겹쳐 입기도 하여 長保 3(1001)년에는 奢侈美裝을 금지시키고 겹쳐지는 袿의 數도 5枚로 한정하기도 했으므로,⁴⁾ 10세기 말의 상류사회의 상황을 묘사한 『枕草子』에서의 色の 화려함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통상 사용되어 왔던 平安시대의 重色目⁵⁾과 비교해 볼 때 『枕草子』 쪽이 오히려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물, 문양 및 염색법에 관한 자료는 풍부하지 않아 깊이 있는 비교는 어려웠으나, 상류층 의복의 대부분이 견직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여 어긋남은 없으며, 염색법 등은 궁중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상의 특

1) 谷川良子, 枕草子女房たちの世界, 東京, エディタ-スクール出版社, 1992.

野村精一, 枕草子の美意識, 東京, 有精堂出版社, 1995.

杉山廣彦, 枕草子の男性觀・女性觀, 東京, 有精堂出版社, 1995.

河緒實英, 枕草子と有職故實, 東京, 有精堂出版社, 1976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 발간된 서적이 매우 많다.

2) 延喜式이란 弘仁式, 貞觀式의 뒤를 이어 받아서 編修된 律令의 施行細則으로서 平安 초기의 궁중의 年中儀式이나 制度 등의 일을 漢文으로 기록한 것이고, 의복의 구성은 河緒實英, 井上章, 日本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社, 1982, pp.38~39에서 전제하였음.

3) 元井 能, 日本被服文化史, 光生館, 1981, pp.22~32.

4) 齊木英夫, 服裝史, 東京, 育英堂, 1987, p.26.

5) 元井 能, 앞책, p.29. 일반적으로 襲色目라고 쓰는데 이 책에서는 重色目라고 쓰여 있다.

정 때문에 기록된 것이 적은 것 같다. 따라서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들은 당시의 현실성을 높
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표 1>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

구분	종류	가지수	
의복과 장신구	外衣	袍, 直衣, 狩衣, 袷, 水干, 裱, 袷, 唐衣, 小袷, 細長, 汗衫, 帷, 綠衫, 赤衣, 裘, 袴, 表袴, 單袴, 指貫, 裳, 壺裝束.	21
	內衣	半臂, 下裳, 白裳, 單裳, 單衣(單).	5
	頭衣	冠, (長)烏帽子.	2
	足衣	履, 沓, 深沓, 半靴, 履了, 足駄, 襪.	7
	裝身具	釵子, 刺櫛, 扇, 檜扇, 枝扇, 細太刀, 笏, 領巾, 裙帶.	9
색채	青朽葉, 黃朽葉, 朽葉(色), 二藍, 青色, 紫, 櫻(色), 藤(色), 山吹(色), 紅梅, 葡萄染, 綠色, 紫苑(色), 萩, 淡色(薄色), 香染, 蘇枋, 紅, 淺綠, 柳(色), 萌黃(萌蔥), 胡桃色, 淡鈍(色), 青鈍(色), 青藤, 練色, 躑躅色, 枯野, 刈安染, 淺蔥.	30	
직물 및 문양	綾, 唐綾, 錦, 唐錦, 薄物(羅), 生絹, 搔練, 固紋, 浮紋, 青摺, 地摺.	11	

<표 2-1> 平安시대의 복장양식 - 延喜式

구분	의복의 구성	
延喜式	男子裝束	袍, 襖子, 半臂, 汗衫, 裱, 表袴, 中袴, 禪.
	女子裝束	袍, 背子, 單衣, 領布, 表拾裙, 羅裙, 下裙, 袴, 單袴, 袷衣.

<표 2-2> 平安시대의 복장제도 - 束帶·袷 양식

구분	의복의 구성	비고		
남자	正裝	束帶	冠, 袍, 半臂, 下裳과 裾, 裱, 單, 表袴, 大口, 石帶, 笏, 檜扇, 帖紙, 襪, 靴, 魚袋, 太刀.	晝裝束, 晴裝束. 位階에 따라 색의 제한 있음.
	略裝	直衣	束帶에서 冠 대신에 烏帽子, 袍 대신에 直衣(狹義), 笏 대신에 扇, 表袴 대신에 指貫을 사용할.	位階에 따라 색의 제한 없음.
		狩衣	直衣와 유사하나 걸옷으로 狩衣(狹義) 착용.	經裝束, 外出服.
		水干	直衣와 유사하나 걸옷으로 水干(狹義) 착용.	布制.
여자	正裝	唐衣裳 (속칭 十二單)*	唐衣, 表着, 打衣, 袷, 單, 打袴, 裳, 帖紙, 檜扇, 襪.	晴裝束.
	略裝	小袷	唐衣裳에서 唐衣, 裳을 제외시킴.	晝裝束.
		기타	壺裝束.	外出服.

* 十二單이라고 하는 것은 江戸시대 이후의 俗稱이고, 정확하게는 唐衣裳이며 十二單은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명칭이 아니다(元井能: 日本被服文化史 p.28에서 전제).

Ⅲ. 『枕草子』 편찬기까지의 일본복식의 배경

『枕草子』가 편찬된 10세기 말기까지의 일본의 역사는 繩文(?-B.C.2~3C.경), 彌生(B.C.2~3C.-A.D.4C.), 古墳(4C.-6C.중엽), 飛鳥(538-645), 奈良(645-794), 平安(794-1185)시대의 일부가 포함된다.⁶⁾ 따라서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은 멀리 원시시대 북방 기마민족의 胡服의 영향에서부터 가깝게는 服制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던 飛鳥, 奈良시대의 복식을 이어 받았고,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8~9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양권 복식의 큰 흐름 속에서 점차 自國의인 意識에도 눈 뜨는, 中世로 이행해 가는 패션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枕草子』가 형성되기까지의 일본복식의 배경을 繩文-彌生-古墳시대, 飛鳥-奈良시대, 平安시대-枕草子 편찬기까지로 대분하여 그 특징적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繩文-彌生-古墳시대

일본 고대의 복식 중 繩文시대에는 의복의 형태

는 명확하지 않으나 모피나 무두질한 가죽 또는 鮭·鱒 등의 魚皮를 衣料로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⁷⁾ 彌生시대에는 魏志 倭人傳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남자는 無縫의 橫幅衣, 여자는 貫頭衣를 착용했다고 하는데,⁸⁾ 香川縣에서 발견된 銅鐸의 문양에서도 남자는 횡폭의, 여자는 관두의 모습이 보여지며,⁹⁾ 이것은 일본복식의 祖型이 되었다. 이후 古墳시대의 埴輪(하나와)에 표현된 복식은 남자는 衣禪, 여자는 衣裳 양식인데 이러한 양식은 고대 한반도를 비롯하여 北方 胡族의 基本衣였으므로, 고대의 일본복식은 북방 대륙문화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⁰⁾

2. 飛鳥-奈良시대

이 시대의 복식사적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服制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唐風이 유행한 시기이다. 먼저 제도화에 있어서 그 첫번째가 603년의 官位12階制의 제정인데 이것은 冠과 帶로서 官位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반도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며,¹¹⁾ 이후에 개정된 7色13階制(647)와 19階制(649), 26階制(664)의 과정에서는 冠 보

6) 繩文, 彌生시대를 原始시대로 묶는 경우도 있고(河越實英, 青木英夫), 奈良시대를 白鳳, 天平시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며(河越實英, 久野健), 平安시대를 弘仁, 藤原시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河越實英).

7) 青木英夫, 앞책, p.3.

8) 三國志, 魏書東夷傳, 倭人條.

9)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東京, 至文堂, 1962, pp.29~30.

10) 藤貞幹, 桂川中良, 阿部弘藏, 鳥居龍藏, 和田千吉, 高橋健自, 浜田耕作 등은 埴輪(하나와)의 의복을 二部形式의 胡服으로 단정하고 대륙계 기마민족의 호복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杉本正年은 북방의 胡族 중 반도의 모든 민족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받은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pp.49~54).

11) 隋書, 翰苑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373년 官位 12階制를 정하여 位階에 따라 冠色을 다르게 하였다. 또한 三國志 魏書에는 10階制, 通典에는 9 및 14階制, 周書와 冊付元龜에는 13階制, 新唐書에는 16階制로 기록되어 있거나 이들 모두가 관위에 따라 冠色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백제에서는 周書, 北史, 三國史記, 隋書에서 16品으로 나누어 帶色을 비롯하여 冠飾, 衣色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신라에서는 梁書에서 5階制, 南史에서 6階制, 北史, 隋書, 通典, 翰苑에서 17階制로서 位階에 따라 冠·服의 색을 다르게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記述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한반도의 諸國이 位階에 따라 冠이나 帶의 색을 다르게 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역사가 오래 지속된 신라에서는 服色에 까지 官位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는 服色이나 織, 繡, 染 혹은 衣紋 등에 官位를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¹²⁾ 이에 따라 683년 冠色에 의한 官位制가 폐지되고 服色에 의한 官位制가 성립되는 것도, 신라에서 이미 법흥왕 7년(520)에 17계제에 따라 紫, 緋, 靑, 黃의 4色服制를 취하고 있었고,¹³⁾ 648년 김춘추가 唐에 가서 朝會할 때 華制에 따라 章服을 고칠 것을 청하는 것 등으로 보아,¹⁴⁾ 服色에 의한 官位의 구별 역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3년 冠色에 의한 官位制가 폐지되면서 일본은 盤領으로서의 새로운 袍袴制를 제정하였는데, 701년 大寶令에 따라 服色에 의한 官位制 또한 폐지시키고, 官位나 位階의 구별 외에 朝廷에서 公事의 輕重에 따라 복식의 上位를 결정하는 새로운 服制를 도입하여 禮服, 朝服, 制服의 制를 성립시켰는데,¹⁵⁾ 일본의 학자들은 이때 부터를 대륙반도의 사정이 變轉推移하여 정세는 반도의 북방문화가 단절되고, 직접적으로 대륙과 교섭하여 고도의 문화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소위 唐風의 유입기간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⁶⁾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거의 소실되어 있는 기간과 때를 같이 하여 복식사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反證은 어려우나, 일본에서 朝服과 制服의 제도였던 盤領의 袍는 훨씬 이전 중국의 北魏의 前身인 「代(A.D. 315~376)」에서 만들어진 것이고,¹⁷⁾ 신라에서는 551(진흥왕 12)년에 이미 幘頭와 公襪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¹⁸⁾ 683년의 袍袴制의 제정은 중국과의 직접 통교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한반도를 경유하여 받아 들여졌을 가

능성 또한 배재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에서 문헌상 冕服, 朝服, 公服, 常服의 제도가 구체적인 기록으로 현존하는 것은 훨씬 후대인 高麗朝이기는 하나, 내용적인 면에서 일본 大寶令의 것과 비교해 보면 禮服은 고려조의 冕服, 일본의 朝服과 制服은 고려조의 公·常服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조에 있었던 朝服의 개념은 일본 奈良시대에는 없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흥덕왕의 복식금령을 볼 때 幘頭와 表衣만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朝服이 5위 이상의 文武官과 女官의 복장이었고, 制服은 6위 이하의 관리나 평민의 入朝時의 복식으로서, 같은 종류의 의복을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제도화시킨 것 뿐이므로, 신라의 表衣는 일본의 朝·制服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령포로 생각된다.

더우기 8세기 초 신라의 服制가 지나치게 화려했음은 흥덕왕이 服飾禁制를 내린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고, 直原制良 교수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7세기 부터 서기 1000년까지는 일본열도의 인구 중 90%가 한국에서 건너간 도래인이었다고 하며,¹⁹⁾ 언어학상 奈良시대의 일본어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와 관련이 있고, 민속이나 생활풍습 또한 우리나라의 그것과 같은 점이 수없이 많다고 하니,²⁰⁾ 7세기 이후 한반도의 모든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수되었음을 감안할 때, 복식에 있어서도 일본으로 유행을 전파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크며, 따라서 일본 보다 한발 앞서 唐의 문화를 받아 들인 신라가 당시의 일본 보다 복식면에서 더 발달되어 있었음은 틀림없다. 특히 李基白은 한국이

12)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1984, pp.23~24.

13) 三國史記, 卷33, 雜誌2, 服色.

14) 通典, 卷185.

15) 701년의 大寶令의 服制樣式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718년의 養老令의 것은 大寶令을 改修하여 구체화 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701年制를 유추할 수 있다. (元井能, 앞책, p.11.)

16) 猪熊兼繁, 앞책, p.122.

17) 文光姬, “韓·中 國領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21.

18) 東史綱目, 卷3上, 신라 진흥왕 12년.

19) 金光彦, “韓日의 生活文化 比較” 1993.7.22. 조선일보에서 전재.

20) 金達壽, “日本에 살아 있는 韓國” 1985. 12. ~1986. 1. 조선일보.

끼친 문화의 유산이 일본에 남아있고, 그것이 한국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일본의 고대문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고대문화를 복원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制度에 있어서도 일본에는 律令의 條目이 아직 남아있고 삼국시대의 그것은 없으므로 그들 일본 율령의 조목은 한국의 고대 율령을 연구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²¹⁾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반도문화의 단절과 唐風의 직접 유입설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3. 平安시대－枕草子 편찬기까지

平安京 遷都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기는 前期와 後期の 문화가 큰 폭으로 달라지고 있어, 遣唐使가 중지되는 894년을 중심으로 弘仁시대와 藤原시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弘仁시대의 복식사적 특징은, 현실은 國風の 대두를 서두르면서 잔존 유물에는 前代의 유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이다. 즉 延長 5(927)년에 완성된 延喜式的 복장양식을 보면 시대적으로는 藤原시대이지만 내용은 弘仁시대의 禁中(宮中)의 諸式을 모은 것이고, 여기에 보이는 복장양식은 그들이 말하는 화려한 唐風の 복장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남자의 裝束 중 襖子, 汗衫, 襦는 그후 곧 下襲, 單, 裯로 각각 바뀌어졌고, 女服에 있어서도 唐風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서도 袿 등의 명칭은 속칭 十二單의 접근을 보이고 있으므로,²²⁾ 弘仁시대 의복의 실재는 奈良시대 유습의 잔존임과 동시에 이후 藤原시대 복식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藤原시대에는 이전의 모든 문화가 융합되면서 일본풍의 스타일이 점차 체계화되어 문학, 건축, 미술 등 모든 면에서 國風 형성을 완성한 시대라 한다. 이 시대의 성립에는 궁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풍부한 재력과 한가한 여유 등 유희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원동력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복식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 형식이나 색채미를 강조한 儀禮服의 발달, 행사나 遊樂에 맞추어 입는 의복의 다양함 등이 이루어져 있었으니,²³⁾ 이러한 사회 조류 속에서 형성된 것 중의 하나가 『枕草子』이고, 이 보다 10년 쯤 뒤에는 유명한 소설 『源氏物語』도 집필 완료되어 편찬된다. 이 시대의 문학작품 속에서 복식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사회상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藤原 복식문화의 일본적 특색의 정도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 돌리고자 한다.

IV.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의 분석

1. 의복과 장신구

1) 外衣

(1) 袍(우에노키누) : 奈良시대 大寶令(685)에서 新樣式으로 채용된 盤領의 上衣로 주름이 있는 橫裂(襷)을 아랫자락에 붙인 有襷과 겨드랑이를 띄우고 無襷인 두 종류의 袍가 있었으며, 結襟양식에도 長紐, 結紐의 두 종류가 있었다.²⁴⁾ 正倉院의 袍를 보면 筒袖에 右衽·左衽이 섞여 있으나 우입이 많고 衣丈과 袖丈이 매우 길며²⁵⁾ 남녀 모두 착용했다.²⁶⁾ 位階에 따라 色을 달리하였으므로 位袍라고도 했고, 647년의 7色13階制에서는 1·2위 深紫, 3위 淺紫, 4위 眞緋, 5위 紺, 6위 綠 등이

21) 李基白, 古代 韓日關係史 研究의 方向, 1973. 1. 新東亞.

22) 河端實英, 井上章, 앞책, pp.38~39.

23) 北村哲郎, 앞책, p.51.

24) 長紐는 이름 그대로 여덟서 끈을 길게 늘어 뜨리는 것이고, 結紐는 한 쪽에 고를 만들고 다른 쪽에 고리를 만들어 끼우는 양식이다. (北村哲郎, 앞책,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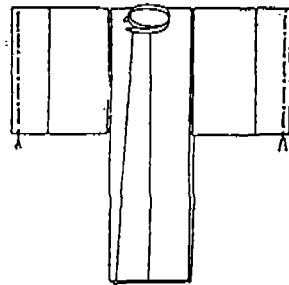
25)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平文社, 正倉院 유물 실측도 참조.

26) 日本書紀, 卷第29, 天武天皇 下, 13년에 「男女並衣服子有襷無襷…」라고 있다.

있던 것이²⁷⁾ 686년에는 深紫, 淺紫, 深綠, 淺綠, 深葡萄, 淺葡萄로 되고 있음을 본다.²⁸⁾ 이들 색이 600년대 이후 자주 바뀌는 점과 紫, 緋, 綠 등의 色順은 일반적으로 당시 중국이나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나, 葡萄, 蔥 등의 색상명은 일본 특유의 것으로 보여진다.²⁹⁾ 天安시대에서의 袍는 남자 正裝인 束帶의 중요 구성으로 文官의 縫腋袍와 武官의 關腋袍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기본형은 奈良시대의 朝服과 같으나 禮의인 요소가 가해지면서 袖口가 넓어지고 옷 전체가 넉넉해졌으며, 반령의襟이 높아지고, 襟의 주름은 양 옆으로 모아졌으며 이것은 다시 양 끝을 달아 내는 양식으로 바뀌었다. 색 역시 朝服의 복색 규정을 그대로 준수했으나, 10세기 말에는 4位 이상은 黑, 5位는 蘇枋, 6位는 縹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³⁰⁾ 이 시기에 이르러 일본적 특색이 한층 분명해지고 있다. 본 『枕草子』에 기록되어 있는 袍는 이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동양 諸國과 맥을 같이 하고, 부분적으로 일본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아진다.

(2) 直衣(노오시): 平安시대 이후 天皇을 비롯한 公家 男子의 집안이나 私인 방문 등에 사용되다가 후일 朝服으로도 사용된 有襟의 盤領袍이다. 일반적인 의복의 구성은 衣, 指貫, 烏帽子, 袴으로서 烏帽子直衣라 했는데, 朝服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烏帽子 대신 冠을 사용하여 冠直衣를 하였고, 더욱 儀禮的인 것으로는 束帶直衣라 하여 指貫에 下裳를 입고 直衣를 입는 것으로 競馬, 覽舞, 遊宴 등 때 신분이 높은 자만이 입었으며, 平安 말기 이후에는 형을 변화시켜 直衣의 종류가 한층 더 많아지게 되었다. 계급에 따른 색상이나 문양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雜袍라고도 했으며, 直衣의 착용시에는 笏를 드는 대신 扇를 들었다.

(3) 狩衣(카리기누): 奈良시대의 位襖에서 생긴 平安시대의 옷이다. 원래 麻布製로 만든 신분이 낮은 자의 옷이었으나 平安시대 公家の 복장으로 도입되면서 綾, 平絹, 紗 등이 사용되었고 겹으로도 되었으나 비교적 짧은이나 신분이 높지 않자 자의 활동복이었다. 烏帽子, 指貫와 함께 착용하며 옷의 특징은 盤領이고, 진동 부분이 떨어져 있으며, 소매 끝에 매는 끈이 있고, 關腋이다. 색상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5位 이상은 織紋이 있고 6位 이하는 無紋이다. 白色으로서 神事에 착용할 때는 淨衣라는 명칭으로서 사용되었고, 안에 입고 있는 옷만 해도 색상과 문양이 자유롭고 경쾌하였으므로, 鎌倉시대 이후 直衣에 비하여 사교의 공식복이 되어 화려해졌으며, 문벌과 연령에 따라 색, 옷감, 문양 등에 차이를 두게 되었다. 半尻는 狩衣 형태이기는 하나 앞 보다 뒷길이가 1尺 정도 짧은 것이며, 반대로 앞길이가 짧은 것은 褐衣라 하여 하인의 옷이었다. 半尻는 江戸시대에는 소년복으로 東宮, 親王, 攝家の 어린이들이 착용했다.³¹⁾ (그림 1 참조).



(그림 1) 狩衣(日本被服文化史, p.33)

27) 日本書紀, 卷第25, 孝德天皇 3年.

28) 日本書紀, 卷第29, 天武天皇 下 14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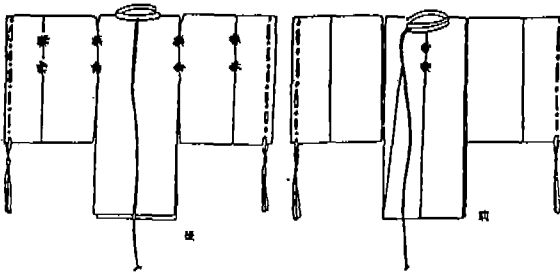
29) 文光姫, 앞논문, p.38, 中國百官의 公·常服色一覽 참조.

30) 北村哲郎, 앞책, p.52.

31) 金美子, “日本 圓領에 관한 研究”, 服飾 17號, 한국복식학회, 1991, p.81.

(4) 襖(아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武官의 制服으로 闕腋袍이고 뒤에 길게 늘어뜨려진 것이 있어 位階에 따라 색을 다르게 하였으므로 位襖라고 한다. 둘째는 狩衣에 안감을 넣은 것으로 狩襖라고도 한다. 셋째는 겹(袷)으로 된 衣로서 綿을 넣기도 하여 남녀 공용이며 襖子라고 한다.³²⁾ 襖는 『枕草子』에서 114段에 두번, 115段 등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때의 襖는 간단한 狩衣차림으로 參詣하기 위해 입고 있고, 또 襖의 狩衣라고 註解되어 있으므로 狩襖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水干(스이칸): 平安시대의 옷이며 하급 관리나 武人의 복장이었다. 형태적으로 狩衣와 비슷하나 菊綴이라고 하는 장식이 가슴과 양 소매와 양 어깨에 꿰매어져 있고襟의 앞 뒤에 끈(紐)이 있어서 여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水干(日本被服文化史, p.33)

(6) 裯(아코메): 사이에 끼운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형태는 單과 같되 안(裏)을 넣고 垂領이다. 남자의 경우 束帶나 直衣를 입을 때 下襲와 單衣 사이에 입으며 걸감은 주로 綾이고 안감은 平絹이다. 보통 색은 表裏 모두 紅色이나 연령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젊은이의 경우 萌黃薄色, 노인인 白色을 주로 사용

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婦人이나 童女가 內衣로서 입었는데, 특히 동녀의 경우에는 이것을 汗衫 안에 입었으나 表衣로 입는 경우도 있었다.

(7) 袷(우치키): 奈良시대의 衣가 변해서 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直衣, 狩衣 속에 입는 평상복이었고, 여자의 경우 平安시대 귀부인의 옷으로 上衣 속에 겹쳐 입는 옷이었으며, 보통 5枚 혹은 7枚 정도 입었다. 袷姿라고 할 때에는 남자는 直衣나 狩衣, 여자는 裳과 唐衣를 입지 않는 차림새이다.

(8) 唐衣(카라기누): 奈良시대의 背子가 형식화 된 것으로³⁴⁾ 平安시대 여자의 正裝인 唐衣裳의 가장 겹에 입는 옷이다. 원래는 大領³⁵⁾과 紐가 있었으나 平安시대 모두 없어지게 되었고 단지 길이가 짧은 羽織(하오리) 처럼 되어 버렸다.³⁶⁾ 따라서 깃 여밈이 없고 垂領이며, 옷길이는 허리까지 오되, 앞길이는 소매길이와 같게 했고 뒷길이는 그 보다 짧게 했으며 겹으로 하였다. 여러 계층에서 입었으며, 상위층에서는 唐綾, 綾錦을 하위층에서는 平絹, 生絹을 사용했다. 따라서 『枕草子』 당시의 일본의 唐衣는 깃과 쇠이 있고 배래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唐衣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9) 小袷(코우치키): 귀부인의 略裝으로 唐衣와 裳을 입지 않고 袷 위에 입었다. 垂領, 廣袖, 長裾이고, 옷감은 겹은 浮織物 안은 平絹이며, 색상은 일정하지 않았다. 안에 打衣, 單衣를 겹쳐 입었다.

(10) 細長(호소나가): 오늘날 일본 羽織의 원형이라 볼 수 있고, 女裝束으로 唐衣와 裳을 하나로 합친 略禮裝이며, 보통의 衣에서 쇠를 생략하고 앞길 부분을 파고 앞길의 폭을 좁게하여 전체적으로 좁고 긴 느낌이 들게 하였으므로 이 이름이 있다.³⁷⁾ 즉 方領으로 쇠이 없고 길이가 한 폭인 좁고 긴 여자의 옷인데, 귀족의 유아복에는 盤領에 길

32) 松村 明 의 2인, 古語辭典, 東京, 旺文社, 1981.

33) 河鱈實英, 井上章, 앞책, p.57.

34)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東京, 聚精堂, 1934, p.14.

35) 袍, 狩衣 등의 盤領의 前襟. 후세에 傳하여 衿이 됨(廣辭苑).

36) 高橋健自, 앞책, p.19.

37) 萩谷 朴 校注, 枕草子, 上·下, 東京, 新潮社版, 1994, 127段, 註6.

도 소매도 모두 한 쪽으로 되어 있었다.³⁸⁾

(11) 汗衫(카자미) : 奈良시대 正倉院의 유물 혹은 『西大寺資財帳』樂服條에 의하면, 內衣 곧 오늘날의 속옷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료가 布인 경우는 衫, 施인 경우를 汗衫이라 했으며 본래는 속옷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겉옷이 되기도 했다.³⁹⁾ 平安시대 이후에 宮女, 童女들의 上衣가 되었고 겨드랑이가 열려 있고 뒷깃과 앞길의 좌우에 꼬리를 길게 빼는 것이 특징이며 裵 위에 착용했다. 『枕草子』에서 淡色에 白麤의 汗衫을 입는다고 있는데(39段), 註에 담색(紫)의 裵 위에 白麤의 汗衫을 착용하는 것은 동녀의 복장이므로, 白絹 아래에서 담자색이 투명하게 보이는 高貴纖細美를 갖춘 것이다⁴⁰⁾라고 있으므로 품위있는 겉옷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儀禮 때의 동녀의 汗衫은 缺腋裾長이고 濃袴에 表袴를 걸쳐 입었다.

(12) 帷(카타비라) : 單衣 아래에 입는 땀받이의 속옷이다.⁴¹⁾ 絹이나 麻布로서 만든 單衣를 말한다. 후일 겉옷으로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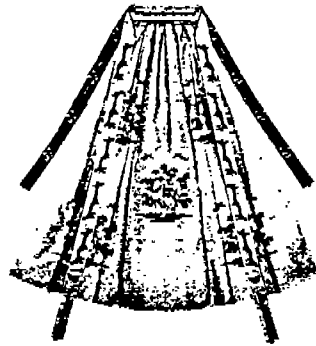
(13) 綠衫(로오소오), 赤衣(새끼이) : 綠衫은 6位の 官人이 착용한 綠色의 袍이고 綠袍라고도 한다. 赤衣는 5位の 官人이 입는 緋色의 袍이다.

(14) 裘(카와고로모) : 毛皮로 만든 의투이다.

(15) 袴(하카마), 表袴, 單袴 : 袴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통이 넓은 바지인데, 용도와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었다. 남자 正裝인 경우에는 表袴, 남자 略裝인 경우에는 指貫, 여자의 경우에는 張袴가 正裝·略裝 모두에 사용되었다. 單袴는 홀바지이다.

(16) 指貫(사시누키) : 衣冠, 直衣, 狩衣 등 남자의 略裝時에 착용하는 폭이 넓은 袴의 일종으로서 裾에 끈(括緒)이 있어 발목에서 매었다.

(17) 裳(모) : 上代는 남녀 모두 착용했으나, 平安시대 이후 부인만 착용하면서 모양이 크게 변화되어, 원래 몸을 감쌌던 것이 의복의 장대화에 따라 허리 뒤에만 형식적으로 남게 되고 따라서 앞에서는 안에 입고 있는 袴가 노출되게 되었다. 正裝을 갖출 때 착용했고 허리 아래에서 굵은 주름을 잡았다. 승려가 착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와서 일본의 裳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그림3).



(그림 3) 裳(宮廷の裝い, p.30)

(18) 壺裝束(쯔보쇼오조쿠) : 여자의 旅裝으로서 옷 위에 다시 옷을 걸쳐서 말아 올리고 허리 둘레를 끈으로 맨다. 그 모양이 항아리(壺) 모양이 되므로 이 이름이 있다. 壺는 또 옷을 오므려 좁힌다는 의미도 있다.⁴²⁾

2) 內衣

(1) 半臂(한뻘) : 奈良시대에도 있었으며 平安시대에 와서는 東帶 착용시 袍 아래에 착용하는 소매폭이 좁은 短衣로 윗 쪽에 가로로 襷를 붙이고 忘緒라고 하는 긴 帶紐를 왼 쪽 옆구리에 매어

38) 新村 出,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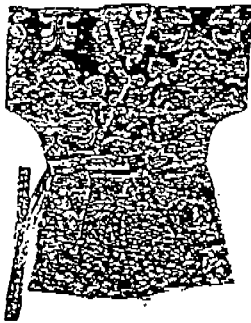
39) 關根眞隆, 앞책, p.143.

40) 枕草子, 上, 39段, 註7.

41) 枕草子, 下, 1本, 註4.

42) 河緒實英, 井上章, 앞책,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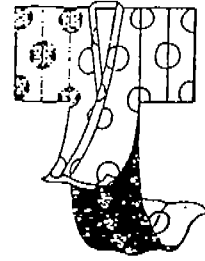
늘어뜨렸다. 배자와 다른 점은 배자는 腰襖이 없고 半臂는 요란이 있다.⁴³⁾ 봉액포와 함께 입으면 襖이 바깥에 보이지 않으므로 鎌倉시대 이후 주로 緋액포와 함께 입었다. 그러나 奈良시대 半臂는 남자가 사계절을 통하여 길에 착용하는 장식적인 衣였고,⁴⁴⁾ 正倉院의 半臂를 보면 垂領, 右衽이고 매우 짧은 소매가 달려 있으며 좌우의 裾 쪽에 각각 끈이 달려 있다. 그러나 左衽도 있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半臂(奈良朝服飾の研究, 圖版32)

(2) 下襖(시타가사네) : 束帶 착용시 半臂 속에 입는 내의로서 垂領의 短衣이다. 緋액이며 특징은 뒤의 아랫자락을 길게 하여 袍 아래에 빠지게 하고 땅에 끌리는 채 걸었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길었다. 殿上에서는 끌리게 하지 집 밖에서는 石帶 등에 끼어서 편하게 했다. 옷감의 무늬와 색상은 계급과 계절에 따라 규정되어 있었고 이것은 束帶의 裝束을 보다 우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그림 5).

(3) 白襖(시로가사네) : 일반적으로 襖色目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나, 『枕草子』의 2段과 39段에 설명되고 있는 것은 袍 또는 直衣의 속에 착용하는 흰색으로 된 下襖를 말한다.⁴⁵⁾



(그림 5) 下襖(枕草子, 旺文社, p.172)

(4) 單襲(히토에가사네) : 下襖의 衣를 여름에 안(裏)을 넣지 않고 겹쳐 입는 것을 말한다.

(5) 單衣·單(히토에) : 垂領의 짧은 내의로 홀으로 된 가장 속에 입는 옷이다. 후일에는 속옷 위에 입었다. 대부분 綾地로 문양은 菱, 색은 紅·兩黃 등으로 되어 있었다.

3) 頭衣

(1) 冠(코오무리) : 奈良시대 朝服에 규정되었던 頭巾이 변화한 것이데, 奈良시대 이미 頭巾을 幘頭라고도 불렀고 冠라고도 불렀다.⁴⁶⁾ 그런데 高橋健自는 일본 衣服令에서의 頭巾은 唐의 幘頭를 모방한 것이고, 唐 開元에 이르러서는 복두의 재료가 紗에서 羅로 바뀌었으므로 羅로 바뀌기 以前 紗로 된 것을 漆紗冠이라 했으며, 따라서 칠사관은 그 材料의 이름에서 붙여진 명칭이라 하였다.⁴⁷⁾ 元井能는 松尾大社의 男神像(그림 6)의 冠의 모습은 平安시대의 藤原 때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했는데,⁴⁸⁾ 10세기 말을 전후하여 冠과 烏帽子의 사용이 正·略裝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볼 때, 본 『枕草子』에 기록되고 있는 冠들은 (그림 7)에서 보듯이 固形化된 형태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진다.

43) 關根眞隆, 앞책, p.106.

44) 바로 앞책, p.114.

45) 枕草子, 上, 2段, 註12.

46) 關根眞隆, 앞책, p.188.

47) 高橋健自, 앞책, p.9, 圖. 45.

48) 元井能, 앞책, p.22.



(그림 6) 男神像(日本被服文化史, p.15)



(그림 7) 平安시대의 冠(古語辭典 附錄)

(2) 烏帽子(에보시), 長烏帽子: 高橋健自는 烏帽子는 복두와는 계통을 달리 하는 것으로 上古시대 胡服系의 帽에 기원을 두는 것이며, 이것이 天武天皇 12년에 圭冠의 制로서 규정되고 후일 烏帽子가 되었다고 하였다.⁴⁹⁾ 平安시대 延喜式 이후, 烏帽子는 貴人の 平服과 無官者의 외출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신분이나 연령에 따라 形과 漆을 다르게 했다. 일본의 郡山女子大學의 服飾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는 平安시대의 直衣, 白拍子에서의 烏帽

子 모습을 볼 때 고깔 모습으로 胡服系 帽의 모습을 강하게 느끼게 해 준다(그림 8). 그러나 후일 立烏帽子, 風折烏帽子, 侍烏帽子, 引立烏帽子, 柔烏帽子 등으로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서 여러가지의 모양으로 변화 발전한다(그림 9). 원래는 黑色의 紗絹으로 만들었으나 鳥羽天皇 이후 종이로 만들어 漆을 발라 固形化 시켰다. 長烏帽子는 立烏帽子가 긴 것을 말한다.



(그림 8) 烏帽子
(日本 郡山女子大學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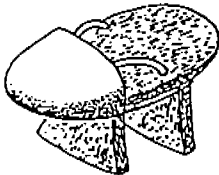
(그림 9) 烏帽子的 종류(古語辭典 附錄)

49) 高橋健自, 앞책, p.10.

4) 足衣

(1) 履(쿠츠), 沓, 深沓, 半靴: 모두 일반적인 신을 의미한다. 平安시대 束帶, 衣冠의 차림에서는 淺沓, 靴, 半靴, 深沓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종류가 『枕草子』에 거의 대부분 나온다. 淺履를 일반적으로沓라 하고 植輪에도 보이므로 上古시대부터 있었다.⁵⁰⁾ 深沓는 長靴를 의미하며 검은 撓革으로 만든 것이고, 半靴는 上部가 布製인데 모두 남성용이다. 여기에 비해 여성용으로는 烏(絹製短沓)가 있었다.⁵¹⁾

(2) 屐子(케이시): 履나沓와는 다른 신의 종류로 足駄에 瓜革을 붙이든지 또는 淺沓에 足駄의 齒(굽)를 붙인 것이다.⁵²⁾ 『枕草子』 2段에는 緒(끈)을 매고 안을 깔아 달라고 있으므로, 직물로 안을 깔았고 앞에 끈을 달아 발가락에 끼워 신었던 것 같다(그림 10 참조). 역시 上古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림 10) 屐子(枕草子, 新潮社版, 附圖)

(3) 足駄(아시다): 下駄의 齒가 높은 高履으로서 현재 일본의 高足駄같은 것이다.⁵³⁾

(4) 襪(시토우즈): 타비(일본버선) 비슷하되 발가락을 끼우는 것이 없다. 『和名抄』 卷12에 「之

太久頭」라고 있으므로 지금의 양말 비슷한 모양이다.⁵⁴⁾ 束帶 착용시沓 또는 靴 속에 신고 白平絹으로 만들었으며 襪의 목을 紐로서 매었다.

5) 장신구

(1) 釵子(사이시): 머리꽃이의 일종으로 금이나 銀으로 만든 가늘고 긴 두가닥으로 된 머리핀이다. 3개가 一條로서 좌우에 교차하여 꽃고 중앙에 꽃아 鬘의 밑자리를 고정시켰다. 釵子에 裂袴⁵⁵⁾를 묶어 늘어뜨리는 것은 步搖의 멋을 흉내내기 위한 것이다. 釵子를 蔽髮이라는 頭飾品과 혼동하기도 하고, 釵子の 용도를 蔽髮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 등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⁵⁶⁾

(2) 櫛(쿠시): 머리 빗는 빗으로 上古시대부터 있었으며 가로로 길었고 木製와 牙製가 있었다.

(3) 刺櫛(사시구시): 插櫛라고도 하며 여성이 장식용으로 머리에 꽂는 빗이다. 櫛는 古墳시대 植輪에 島田式으로 된 結髮의 앞 쪽에도 꽂고 있고, 上古시대 남자 좌우의 美頭良(미즈라)에도 꽂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⁷⁾ 문헌상 刺櫛가 나타나는 것은 奈良시대이며,⁵⁸⁾ 머리를 올린 額髮 앞에 꽂았고, 金銀甲冑의 象嵌 등 장식을 하였으므로 때때로 광택을 내어 투명하게 했다.⁵⁹⁾

(4) 檜扇(히오오기), 枝扇(에다오오기), 扇: 實用 및 禮用으로 사용한 부채의 종류들이다. 중국의 團扇에 대하여 平安前期 일본에서 사용한 것은 檜扇, 蝙蝠扇의 두 종류가 있었고 각각 冬扇, 夏扇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檜扇는 冬節用이고 禮裝用이었다. 檜扇는 노송나무의 얇은 조각으로 만들

50) 바로 앞책, p.5.

51) 枕草子, 上, 115段, 註11.

52) 枕草子, 上, 2段, 註8.

53) 枕草子, 上, 115段, 註7.

54) 枕草子, 上, 103段, 註2.

55) 버드나무(柳木)를 얇게 깎은 3寸 정도의 작은 판자에 「物忌」라고 하는 글자를 새긴 부적의 일종(古語辭典).

56) 枕草子, 上, 87段, 註12.

57) 高橋健自, 앞책, p.8.

58) 衣服令集解 內親王 禮服條 古記에 「禮服櫛者 謂刺櫛也...」라고 있다. (關根眞隆, 앞책, p.216.)

59) 枕草子, 下, 258段, 註6.

었고, 계급에 따라 판자의 매수가 정해져 있었으며, 公卿이 衣冠이나 直衣를 착용할 때에 笏 대신에 드는 것이었다. 귀부인용의 相扇도 檜扇라고 불렀다. 남자는 略裝에 여자는 正裝에 사용하였다.⁶⁰⁾ 枝扇은 나뭇가지를 잘라 잎이 달린채로 부채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枕草子』에서는 스님이 사용하는 부채에 枝扇이라고 있으므로⁶¹⁾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부채로서 활용하는 멋스런 부채였던 것 같다.

(5) 細太刀(호소다치) : 上古시대부터 손잡이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의 형태로 발달되어 있었으며, 平安시대에는 일반 귀족의 束帶 착용시 패용하는 칼 끝이 위로 올라가고 몸집이 가는 儀刀이다.⁶²⁾ 高位者의 儀式 때는 손잡이에 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飾太刀를 사용하였다.

(6) 笏(샤푸) : 원래 唐制이고 奈良시대 衣服令에서는 황태자 이하 文武官의 禮服 및 5位 이상의 朝服에는 牙笏, 6位 이하에는 木笏로 位階에 따라 材質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으나, 平安시대의 延喜式에서는 上位職에도 象牙 대신에 白木이 허용되어, 이후 禮服 이외에는 모두 木笏를 사용하였다. 正裝인 束帶의 경우에는 주로 櫟나무를 재료로 한 木笏를 가졌다.

(7) 領巾(히래) : 일반적으로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바람에 휘날리는 얇은 천의 총칭이고, 둘째 고대 害蟲, 毒死 등으로 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술적 의미에서 두르는 布이며, 셋째 奈良·平安시대에 사용된 여자의 복식품으로 목에 걸어서 좌우로 길게 늘어뜨린 布帛인데⁶³⁾ 옛날에는 남녀 모두가 착용했다.⁶⁴⁾ 平安시대에는 衣冠束帶가 정해지기 이전 延喜式에서 여자 의복의 구성으

로 정해져 있었는데, 본 『枕草子』에서는 歌舞하는 장면(84段)과 말을 타는 장면(260段)에서 휘날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 非儀式的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裙帶(쿠타이) : 원래는 裙에 달린 끈이었으나, 裙을 사용하지 않고 끈만을 裳에 달아 平安시대 띠로서 묶다가 후일 女官 正裝時 장식용으로 裳의 좌우에 길게 늘어뜨렸다.⁶⁵⁾ 처음에는 裙帶라고 불렀으나 후일 引腰라고도 불렀다.⁶⁶⁾

이상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 중 의복과 장신구에 대한 고찰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頭衣, 足衣를 포함한 의복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바, 한가지는 前代의 복식문화가 平安시대까지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져 온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명칭이나 형태면에서 前代에 비하여 크게 변화된 양식이다. 前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頭衣類, 足衣類, 裝身具類의 거의 모든 것과 汗衫, 綠衫, 赤衣, 袴, 半臂 등이고,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上古시대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奈良시대 그들이 말하는 唐風의인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민족들도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그 양식의 발단은 북아시아적인 것, 서아시아적인 것, 중국적인 것 등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정치적·지리적 여건에서 이 양식들은 唐에서 취합되고 발전되어 다시 동양권 일대에 再流行된 것이고, 飛鳥·奈良시대 당시의 韓·日의 상황에서 미루어 볼 때, 그 유통 경로는 중국에서 직접적인 통로도 있었겠지만, 한반도에서의 傳來도 매우 많았을 것으로 보아진다.

60) 廣辭苑, 古語辭典.

61) 枕草子, 上, 9段.

62) 枕草子, 上, 66段, 註8.

63) 廣辭苑.

64) 古語辭典.

65) 古語辭典.

66) 廣辭苑.

다음으로 형태나 명칭면에서 平安시대에 와서 많이 달라진 것 중, 먼저 명칭면에서 새롭게 명명된 것들로서는 直衣, 狩衣, 水干, 袷, 袷, 小袷, 細長, 帷, 指貫, 壺裝束, 下襲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중 直衣, 狩衣, 水干 등은 명칭은 새롭게는 하나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일대에서 유행하였던 整領袍를 기본으로 하여 그 형태가 변화된 것이고,⁶⁷⁾ 袷, 袷, 下襲, 指貫 등도 각각 前시대의 襦, 衣, 襖子, 袴가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옷은 아니다. 또한 명칭은 前代와 유사하되 형태면에서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는 唐衣, 裳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袍도 기본은 반령포이나 襪의 모양 등에 있어서 일본적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自國의 복장양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그 발단에 있어서 唐衣, 裳, 袍 모두는 외래적 요소였으므로 순수한 일본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枕草子」에 나타난 당시의 일본복식은 여전히 외래적 요소로서 형성되어 있고, 1000년 경의 일본 패션의 흐름이 여기에 포함될 뿐이다.

2. 색 채

「枕草子」에서 색에 대한 명칭은 매우 많았다. 이들의 色名을 고찰해 본 결과 일반적인 定義 외

에 襲色目이 있었고, 또 織組時에 緯絲와 經絲의 색을 다르게 하여 짜기도 하여, 하나의 색명에 대하여 크게 3가지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었다. 襲色目란 의복을 겹쳐 입었을 때 表裏 또는 上下의 색 배합을 말하는데, 남자의 옷인 直衣, 狩衣, 下襲의 경우에는 表裏의 색배합을 의미하고, 여자의 옷인 五衣, 單衣, 重袷 등의 경우에는 上下가 겹쳐지는 異色の 색 배합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계절에 따라 색의 규정이 달랐으며, 또 같은 색이라도 계절에 맞추어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같은 이름이라도 의복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배색을 할 경우도 있었다. 市川節子は 계절에 따른 색배합의 경우 봄에는 색상과 색조(tone) 모두에 있어서 유사배색의 경향이 강하고, 또 白과의 배색에서는 특히 색조에 있어서 대조적인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여름에는 대조적인 배색, 그리고 색조는 同系와 類似系가 많고, 가을은 거의 보편적인 배색, 겨울은 衣色끼리의 배색이 많다고 하였다.⁶⁸⁾ 본 자료 또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다면 이와 같은 결론과의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 같으나 이것만으로도 다량의 연구가 요구되므로 차후의 과제로 돌리며, 本稿에서는 「枕草子」에 나타난 色名을 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一般的 定義, 襲色目, 織色, 季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에 머무른다 <표 3 참조>.

<표 3> 枕草子에 나타난 色의 定義

色 名	一般的 定義	襲 色 目		織 色		季 節
		表	裏	經	緯	
青朽葉	엷은 검은 빛이 있는 黃色朽葉에 青色을 섞은 색상	가로: 黃	靑	靑	黃	초여름
		세로: 靑	朽葉色			
黃朽葉	淡黃色에 淡紅色 또는 紅을 섞은 색			紅	黃	가을
朽葉(色)	씩은 낙엽의 색, 赤色 기미를 띤 黃色	赤色 기미를 띤 茶色	黃			가을

67) 일본은 平安시대 이후 圓領(整領)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칭도 많아지게 되었다. (金美子, 앞논문, p.71.)

68) 市川節子, 福田保, “文獻を資料とした色名の變遷”, 大妻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第25號, 1989, p.56.

二藍	紅花(잇꽃)와 藍(쪽)의 두 종류의 염료로서 짙은 이차색으로 짙은 보라색	짙은 縹色	縹	紅	藍	
靑色	일반적으로는 靑色을 말하나, 靑色の 袍라고 할 때는 天皇의 袍인 麴麻袍를 말함.			萌黃	黃	
紫	염색 명칭의 하나 지치의 뿌리로서 염색한 赤紫色					
櫻(色)	벚꽃 같은 淡紅色을 말함	白	深紫 赤 二藍			봄
藤(色)	연한 紫色	淺紫 紫	靑 萌黃			음력 3~4월경
山吹(色)	죽도화나무(山吹)의 꽃과 같은 색, 黃金色	朽麻 연한朽麻	紅梅 黃			음력 3~4월경
紅梅	짙은 복숭아색(古), 紫紅色(現). 織色에서 經·緯絲에 紫·紅으로 하는 경우 연소자가 사용함.	紅梅 紅	紫 紫	紫	紅	봄
葡萄染	赤의 짙은색, 紫色 기미가 도는 赤色, 葡萄色. 葡萄葛(산포도의 古名)의 열매를 익힌 색과 비슷하므로 이 이름이 있음.	紫 蘇枋	赤 縹	紅	薄紫	
綠色	靑色과 黃色의 間色					
紫苑(色)	도라지색의 옅은 색, 藍紫色	薄色 紫 蘇枋	靑 蘇枋 萌黃			가을
萩(色)	싸리꽃색, 明紫色	蘇枋	靑			가을
淡色(薄色)	薄紫色 또는 薄紅色을 말함	赤色기미가 도는 縹色	薄紫 또는 白	紫	白	
香染	黃色기미가 도는 薄赤色					
蘇枋	黑色기미가 도는 赤色	薄茶色 薄蘇枋	濃赤色 濃蘇枋			
紅	紅花의 汁으로 염색한 선명한 赤色	紅	靑			가을
淺綠	옅은 綠色. 縹色, 옅은 萌黃色을 말함					
柳(色)	白色기미가 도는 靑色	白	靑	萌蔥	白	봄
萌黃(萌蔥)	黃과 靑의 중간색, 연한 綠色	萌黃 薄靑	萌黃 縹			
胡桃色	연한 褐色, 호두색	薄香色	白			
淡鈍(色)	연한 灰色					
靑鈍(色)	靑色기미가 도는 縹色	濃縹色	濃縹色			
靑藤		經:靑 緯:黃	萌黃			음 3~4월
練色	淡黃色					

麤濁色		蘇枋	萌蔥			
		白	紅			
枯野		黃	薄青			가을-겨울
			白			
			연한 綠色			
刈安染	黃色					
淺蔥	談黃色이라고도 쓰고 황색기미가 도는 연한색	薄藍	薄藍			

이의 禁色에 대한 기록도 있었는데, 靑色이 袍로서 명명될 때는 天皇의 袍인 麤塵袍를 의미하므로 禁色이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靑色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중요 행사시 6位の 官吏에게는 例外로 허락되고 있는 것이 다수 기록되고 있다 (이때 재료는 무명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平安시대, 그 중에서도 후대인 藤原시대에 와서는 前대에 비하여 의복에 색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사용의 범위 또한 증대해 나갔고, 禁色 또한 분명하게 실시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⁶⁹⁾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색채에 있어서는 10세기 말 일본의 自國의 특색이 비교적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3. 직물과 문양

(1) 綾(아야), 唐綾: 綾紋이 있는 견직물로 문양의 종류에 따라 葵, 酢漿, 霰地の 3가지로 나눌 수 있다.⁷⁰⁾ 唐綾은 중국산이되 浮紋으로 짠 上品으로 현재 일본의 繪子 비슷한 것이다.

(2) 錦(니시키), 唐錦: 바탕조직에 斜文繪子 등의 조직을 이용하여 金銀絲 및 여러종류의 彩絲를 紋緯로 삼아 화려한 문양을 짜 낸 두꺼운 견직물의 총칭이고, 唐錦은 중국산 錦이다.

(3) 生絹(스즈시), 搔練(카이네리): 生絹은 精練하지 않은 견직물로 뻣뻣하여 주로 여름철 옷감

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搔練은 練絹을 말한다.

(4) 薄物(우스모노: 羅): 얇은 견직물을 말하며 紗, 絹도 포함된다.

(5) 固紋(카따몬), 浮紋(우끼몬): 固紋은 직물의 문양이 바탕 천에 도드라지지 않게 짜는 것이고, 浮紋은 도드라지게 짜는 것이다.

(6) 靑摺(아오즈리), 地摺(지즈리): 靑摺는 풀기 있는 白絹에 쪽잎(藍葉) 등으로서 花鳥 등의 문양을 파랗게 찍어내는 염색법이고, 地摺는 縹色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염색법 혹은 천에 金泥, 銀泥로서 무늬를 찍어내는 염색법을 말한다.

이상에서 보면 직물은 綾, 錦, 羅 등 견직물 뿐이고, 염색법이 약소하게 소개될 정도이다. 平安시대 이보다 훨씬 발달된 양식이 있었으나, 『枕草子』의 내용이 궁중생활의 묘사라는 점에서 고급직물만 기록되어 있고, 평민이나 상인이 하는 염색법이나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V. 맺는말

본 연구는 10세기 말 일본의 궁중생활을 수필의 형태로 쓴 『枕草子』라는 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있는 복식자료를 발췌·분석한 것이다. 10세기 말은 平安시대의 中後期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일본에서의 복식문화는 그 어느 때 보다는 화려하게

69) 元井能, 앞책, p.34.

70) 枕草子, 下, 1本 11.

발달해 있었던 시대이고, 한반도로 보아서는 복식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시대이다. 연구의 목적은 『枕草子』를 통하여 당시 일본복식을 再考하고, 그들 자료의 증첩으로 한반도 복식사의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자료들은 의복과 장신구 44종, 색채 30종, 직물, 문양, 염색법이 합쳐서 11종 등 모두 85종이 발췌되었다.

2. 이들 자료를 기존 연구된 당시의 복식제도와 비교해 본 결과, 『枕草子』에 나타난 복식은 현실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3. 10세기 까지 일본복식의 배경 중에는, 上古시대 때부터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7세기를 전후한 奈良시대에는 한반도 三國으로 부터의 영향은 매우 컸다.

4. 의복과 장신구를 분석한 결과,

4-1. 奈良 등 前時代로 부터의 복식문화가 큰 변화 없이 사용된 것으로서는 頭衣類, 足衣類, 裝身具類 중의 거의 모든 것과 汗衫, 綠衫, 赤衣, 袴, 半臂 등이 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주변 민족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4-2. 平安시대에 새롭게 命名되는 것으로서는 直衣, 狩衣, 水干, 裵, 袴, 小袴, 細長, 帷, 指貫, 壺裝束, 下襲 등이 있었으나, 이들 중 直衣, 狩衣, 水干 등은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 일대에서 유행하였던 盤領袍가 기본이 된 것이고, 裵, 袴, 下襲, 指貫 등도 각각 前시대에 유사한 형태가 있었으므로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순수한 일본적 양식은 아니었다.

4-3. 명칭은 前代와 유사하나 형태면에서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서는 唐衣, 裳, 袍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自國的(일본적) 복장양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복식 역시 그 발달에 있어서는 동양권 일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순수한 일본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枕草子』에 나타난 의복과 장신구는 대부분 周邊國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양식을 명칭이나 형태면에서 그들의 취향과 속성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色名을 고찰해 본 결과, 一般的인 定義, 襲色目, 織組時의 緯·經絲의 色 배합 등 크게 3가지의 측면에서 정의되었고, 禁色의 조항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색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색이 매우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당시 일본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自國的 특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6. 직물은 견직물 뿐이고, 염색법이 약소하게 소개될 정도이다. 平安시대 이보다 훨씬 발달된 양식이 있었으나, 『枕草子』의 내용이 궁중생활의 묘사라는 점에서 고급직물만 기록되어 있고, 평민이나 상인이 하는 염색법이나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분석이 계속될 때 보다 명확한 일본의 복식문화가 밝혀질 수 있고, 이것은 동시에 한국복식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今泉忠義, 鈴木一雄 監수, 枕草子, 東京, 旺文社, 1983
- 萩谷 朴 校注, 枕草子, 上·下, 東京, 新潮社版, 1994
-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上, 東京, 聚精堂, 1934
-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平文社
- 文化學園服飾博物館, 宮廷の装い, 東京, 大塚巧藝社, 1991
-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84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 應司繪子, 服裝文化史, 東京, 朝倉書店, 1984
- 元井 能,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1981
-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東京, 至文堂, 1962
- 田容新 역, 日本書紀, 서울, 일지사, 1992
- 秦弘燮 역, 久野健 외 2인, 일본미술사, 서울, 열화당, 1978
- 青木英夫, 服裝史, 東京, 育英堂, 1987
- 河鯖寅英, 井上章, 日本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社, 1982
- 松村 明 외 2인, 古語辭典, 東京, 旺文社, 1981
- 新村 出,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80
- 市川節子, 福田保, “文獻를 資料とした 色名의 變遷”, 大妻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25號, 1989
- 三國史記, 三國志, 翰苑, 通典, 周書, 梁書, 南史, 北史, 冊付元龜, 隋書, 新唐書
- 金美子, “日本 團領에 관한 研究”, 服飾 17號, 한국복식학회, 1991
- 文光姬, “韓·中 團領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金光彥, “韓日의 生活文化 比較” 1993. 7. 22. 조선일보
- 金達壽, “日本에 살아 있는 韓國” 1985. 12~1986. 1. 조선일보
- 李基白, “古代 韓日關係史 研究의 方向”, 1973, 1, 新東亞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 Textiles Recorded in 『Makuranosorsi(枕草子)』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Makuranosorsi(枕草子)』. This book was written by a

Japanese servant in the Royal Court about the year 1000. In this book, many kinds of clothing, ornament, color and materials were mentioned.

The discoveries of this paper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85 different kinds of name. In detail, there were 46 Clothing and Accessories, 32 Colors, 11 Materials, Patterns, the method of Dyeing.

2. All the Clothing and Textiles in 『Makuranosorsi』 were reflections of the reality of that time.

3. From ancient times, Japanese Costume was much influenced by Korea. But around the 7th century the influence increased.

4. Almost all Clothing and Accessories used in Japan in the 10th century had been previously used in neighboring countries, Korea and China. But after they were imported to Japan, some of them were changed to Japanese hybrids, especially in name and shape.

5. In Japan, Clothing Colors were used in various ways, sometimes colors coordinated by over lapping dress and othertimes the colors were weaved together. Namely the width and length of these colorful fibres are also significant meaning. This means that the Japanese was much more interested in color than other countries, and this also proves Clothing Colors were very developed in Japan by the 10th century.

6. The Materials discovered in this book were almost all silk. This is the reason why 『Makuranosorsi』 was the expression of the Royal Court.